

조심·자비·정성 깃든 태도가 마장 없애

열린선원 4일 입춘법회 새 모델 '부처님 씻어드리기' 봉행

24절기 중 맨처음 찾아오는 입춘(立春)은 한해의 시작을 알리는 중요한 날이다. 해마다 입춘이면 전국 사찰에서는 민간 세시풍속에 맞춰 삼재(三災: 흉수, 태풍, 화재 혹은 질병, 기근, 도적)부적을 쓰고 '입춘대길 건양다경(立春大吉 建陽多慶)'이라는 입춘방을 나눠주는 풍습이 있어왔다. 중생구제의 방편으로 쓰였던 부처 등은 부처님 가르침과는 다르다는 일반 신도들의 인식이 확산되면서 사찰에서도 부적을 나눠주는 풍속이 점차 줄고 있다. 이런 가운데 입춘을 맞아 불상의 면지를 타는 이색 법회가 열려 눈길을 끌었다.

살법한 추위가 채 가시지 않은 2월 4일 입춘, 서울 역촌시장 내에 위치한 저잣거리 포교원 열린선원(선원장 법현)에서는 '부처님 씻어드리기(浴佛법회)'가 봉행됐다.

법현 스님을 비롯한 30여 신도들은 흰 장갑을 끼고 삼존불 뒤에 모셔진 원불(願佛) 300여 좌를 조심스레 내렸다. 불상을 직접 만져본 신도들이 살짝 들며 흥분하자 법현 스님은 "천천히 내리세요. 절대 서두를 필요 없습니다"라며 신도들을 진정시켰다. 불단에 모셔진 부처님을 옮기는 신도들의 손끝은 막 어머니의 뺨에서 나온 아이를 품은 듯 조심스럽고 신중했다. 40여 분이 걸려 내려진 불상을 순서와 줄에 맞춰 일렬로 가지런히 모시는 것만으로도 하나의 수행이었다. 원불이 모두 내려지자 신도들은 부드러운 털로 만들어진 솜을 들고 지난 1년 동안 불상에 쌓인 면지를 조심스럽게 털어냈다. 부처님 머리 부분의 나발(螺髮), 육계(肉髻)까지 구석구석 말끔하게 닦여진 불상을 원래 위치로 옮기는 데는 더 많은 정

성과 시간이 필요했다. '부처님 씻어드리기 법회'는 부처보다는 불상을 옮기고 닦을 때와 같은 조심스러운 마음, 정성스러운 태도를 지니고 살아가는 삶의 태도가 3재 마장을 없애 준다는 의식으로 자리 잡고 있었다.

새해 새로운 의지를 다지고자 근무시간을 쪼개 법회에 참석한 임영래(50·서울 우이동)씨는 바쁜 업무가 있지만 마음 닦는 일이 먼저라고 생각해 시간을 냈다. 그는 "마치 몸과 마음에 쌓인 묵은 때를 털어내는 것처럼 새롭고 신선한 느낌"이라며 곳곳의 면지를 털어냈다.

지난해에 이어 참석한 정서 보살(52·경기 산본)은 "부적을 받고 기도를 하는 것 이상으로 부처님에 대한 예경심이 들고 내 마음도 개운하다. 기복적인 행위가 아닌 실천을 통한 신생활동

이라는 측면에서 의미가 큰 것 같다"며 능숙한 움직임으로 스님과 함께 의식 진행에 앞장섰다.

법현 스님은 신도들이 함께 모여 부처님 몸에 면지를 털며 새해를 맞아 마음을 가다듬고 수행과 생활의 조화를 꾀한다는 의미에서 2006년부터 부처님 씻어드리기 법회를 열어왔다. 스님은 "입춘이면 문화적 이유를 들어 업장소멸, 삼재풀이 법회가 열리지만 불교적인 의미가 담긴 새로운 입춘 법회가 필요했다"며 "불제자로 평생 닦아야 할 부처님 몸에 쌓인 면지를 털어드리는 것은 우리 마음에 쌓인 면지를 털어내는 것을 상징한다. 또 부처님께 면지를 털어드리듯 누구나 마음의 때를 닦을 수 있다는 것을 알리는데 큰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다.

이상연 기자 un82@buddhapia.com

일본 제사문화서 술 들어와

불교생활의례문화원 '명절·기제사에 술 대신 차' 캠페인

설 차례를 앞두고 술 대신 차(茶) 올리기 운동이 본격적으로 전개될 전망이다.

조계종 중앙신도회 부설 불교생활의례문화원이사장 직무대행 김규범은 '명절과 기제사에 술 대신 차를 올립시다' 불자생활 캠페인을 통해 전통문화 복원과 함께 현대에 적합한 제사문화를 확산 보급해 나간다.

종교와 집안, 지역 전통과 풍습에 따라 제사를 지내는 방식은 각기 다르지만 차례상에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것은 술이다. 술을 올리게 된 것은 그리 오래된 일이 아니다. 조선시대 승유벽 정책과 일제강점기 일본 제사문화가 한국에 유입되면서부터 술을 사용하기 시작했고, 이것이 전통문화처럼 정착된 것이다.

차를 마시는 문화가 보편화된 시점에서 불교생활의례문화원은 술 사용금지가 아니라 차 사용을 권장하는 방향으로 운동



명절 차례·기제사에 차를 올릴 때에는 제주가 제배를 올리는 동안 주부가 옆에서 차를 우려 올리면 된다. 사진제공=불교생활의례문화원

을 전개해 나간다.

차례나 기제사에 차를 공양하는 것은 간단하다. 제사를 지낼 때에 제주(祭主)가 제배를 올리는 동안 주부(主婦: 한 집안의 제사를 맡아 받드는 사람의 아내)가 차를 만들거나 미리 우려낸 차를 올리면 된다. 차 종류는 녹차, 홍차, 말차 등 제한 없다.

불교생활의례문화원 부설 불교생활의례연구소 순남숙 소장은 "종교를 떠나 어느 가정에서도 쉽게 수용할 수 있는 차를 통해 전통문화 복원과 현대에 적합한 제례문화보급을 계획하고 있다"며 "살아있는 불교의례

는 실생활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제사상에 술을 올리는 의미는 '강신(降神)'을 위한 것으로 죽음과 혼백이 들어가는 사상에 출발하는 것으로 불교적으로 맞지 않지만 차를 올리는 것은 부모님께 새해 차 공양을 한다는 차원에서 의미가 깊다"고 설명했다.

캠페인은 서울시, 예지원, 중앙신도회, 조계종 총무원, 주요사찰을 중심으로 체계적인 연구를 통해 기본 교육 내용을 교재로 만들 예정이다.

사실 차례상에 차 올리기 운동이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10여 년 전부터 법현 스님(열린선원 선원장)은 '차례상에 차 쓰기' 운동을 펼쳐왔다. 스님은 "중국, 한국의 불교와 유교 문헌을 보면 어느 종교나 마찬가지로 차를 많이 쓰며 조상과 부처님께 예를 올렸다"며 "추석과 설 차례(茶禮)에는 꼭 차를 올려야 한다"고 주장해오고 있다.

이상연 기자



정운찬 총리 자승 스님 예방 정운찬 국무총리가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을 찾아 세종시 수정안으로 촉발된 지역 분열에 불교계가 대응적 화합차원에서 나서줄 것을 당부했다. 정 총리의 종교지도자 회동 일정으로 이뤄진 2월 3일 예방에서는 세종시 문제를 비롯해 평양 방문, 국립공원 문제, 지관 스님 폭행사건 등을 주제로 대화가 오갔다. 노덕현 기자

(사) 한국불교 금강선원 학인모집 안내

- 직장에서 가정에서 불교 교리 학습 -
불교통신대학 · 대학원

◆ 대학장 : 호 암 ◆ 대학원장 : 서무선

발심을 하고도 시간상, 거리상 제약으로 부처님 공부를 체계적으로 공부할 수 없는 불자들이 위해 통신과정을 마련하여 각자의 근기에 따라 학습 진도를 조절하면서 공부할 수 있도록 통신교재가 준비되어 있다.

- ◇ 통신 대학 : 기초과, 중등과, 고등과, 대학과 (각 6개월 과정 - 2년)
- ◇ 통신대학원 : 경, 율, 론, 선, 밀교 (대학원 - 각 1년 과정)
- ◇ 원서 접수 및 교부 : 수시접수

- 강원 교육 -

나란다삼장불교대학

◆ 학 장 : 성 덕

강원교육을 이수하지 못한 스님과 출가를 원하는 불자 및 초심자를위하여 의식을 포함한 기초과정이 마련되어 있다.

- ◇ 모집학과 : 사미과, 사지과, 사교과, 대교과 (각 6개월 과정)
- ◇ 원서교부 : 2010년 1월 10일 부터 ~
- ◇ 전형방법 : 서류전형 및 면접
- ◇ 개 강 : 2010년 3월 8일 월요일
- ◇ 교 수 진 : 활안 한정섭스님, 호암스님, 서무선박사님, 이지행교수, 김익순교수외
- ◇ 출가수행, 사암, 포교원운영 행정지원
- ◇ 출가 수행자를 위한 기숙사 안비

* 우수학인 장학금 지급

- 범패 · 작법무 -
불교예술대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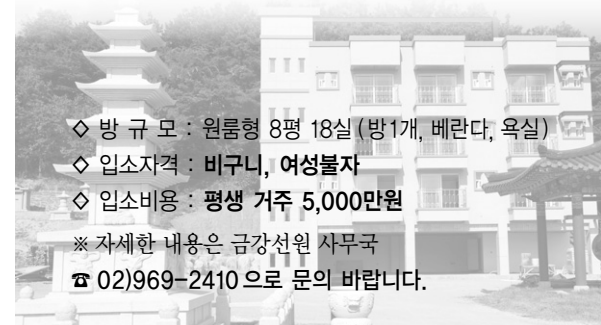
◆ 교수 : 해 사

불교예술의 계승 발전과 지도자 양성을 목적으로 교육하는 불교예술대학에서는 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 이수자 해사스님을 교수로 초빙하여 불교예술의 전수를 배울 수 있다. 불교예술의 관심을 가지고 배우고자하는 학인들의 좋은 기회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 ◇ 강의내용 : 사물다루는 법 등 기초의식교육
- ◇ 원서교부 : 2010년 1월 10일 ~
- ◇ 수업시간 : 매주 화요일 오후 3시 ~ 6시
- ◇ 개 강 : 2010년 3월 9일 화요일

제천 금강사기로운 입소자모집 실버타운

금강선원에서는 복지사업의 일환으로 제천 기로원을 완공하여 비구니 스님과 여성 불자들이 편안한 노후를 지낼 수 있도록 준비하였습니다. 복지타운으로 이용될 요사채에 입소하실 비구니, 여자 불자들의 신청을 받고자 하오니 뜻있는 분들의 참여를 바랍니다.



- ◇ 방 규 모 : 원룸형 8평 18실 (방1개, 베란다, 욕실)
- ◇ 입소자격 : 비구니, 여성불자
- ◇ 입소비용 : 평생 거주 5,000만원
- ※ 자세한 내용은 금강선원 사무국 ☎ 02)969-2410으로 문의 바랍니다.

1000字 뉴스

조계종 임시총회 3월 8일 개최

제183회 조계종 임시총회가 3월 8일 개최 예정인 가운데 총무원장 선거법 등 선거 과정에서 개선의 목소리가 높았던 중법들의 개정안이 상정될 전망이다. 특히 선거기간 및 선거인단 기준 등의 문제점을 지적받은 총무원장선거법에 적지 않은

변화가 예상된다. 중앙총회의원선거법도 직능대표 선출조항의 보완, 거주승제도 폐지 등이 논의되고 있다. 중앙총회 선거법개정특위는 2월 5일 위원장 일문 스님 등 7명의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공주 전통불교문화원에서 워크숍을 갖고 개정안을 마련했다.

봉원사 토지 분할 강제조정

조계종·태고종간 소유권 문제로 8년간 재판이 진행돼 온 신촌 봉원사 소유권 분쟁이 타결 막바지에 이르고 있다. 서울 고등법원 민사20부는 2월 1일자로 조계종과 태고종에 신촌 봉원사 토지

분할 강제조정안을 발부했다. 이번 안에 따르면 봉원사 토지 10만평 중 7만 8000평은 태고종이, 2만 3000평은 조계종이 소유토록 했으며, 삼보정재 유실을 막기 위해 제3차 매도 시 상대방의 동의 거처도록 했다. 조계종과 태고종은 9일 조정안 수용 여부 등 입장을 정할 방침이다.

10일 자비나눔 중단 모금행사

아름다운동행 이사장 자승 스님(조계종 총무원장)은 2월 10일 오전 10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1층 로비에서 '2010 자비나눔 확산을 위한 중단 모금행사'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아름다운동행이 2010년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전개하는 자비나눔 모금운동의 시작으로 총무원장 자승 스님·교육원장 현웅 스님·포교원장 해홍 스님과 이하 부실장스님, 산하단체 종무원 등이 참여할 예정이다.

불교인권위 복讞상품 판매전

불교인권위원회(위원장 진관)는 북한상품 전문거래업체인 '한민족 유통'과 손잡고 2월 8-9일 국회의사당 내 의원회관 로비에서 남북한간 내부 거래 인식 확대를 위한 '북讞 상품 전시 판매전'을 개최한다.

이번 전시판매전은 각종 나물과 야생 더덕을 비롯해 전통식으로 담근 간장, 된장, 고추장 등 전통장류, 북讞의 천연기념물인 강서청산수, 상향 버섯과 차가버섯, 백두산 들쭉쭉을 비롯한 각종 주류 등을 직접 시식하면서 구입할 수 있는 열린 장터로 운영될 예정이다. 또 서화작품과 공예품 등을 공개 전시하고 현장 판매도 병행한다.

조계종 호법부 장기기증 동참

조계종 총무원 호법부 스님들은 2월 1일 총무원 호법부장실에서 생명나눔실천본부(이사장 일문) 장기기증 행복발레이에 동참의사를 밝히고 장기기증신청서를 전달했다. 이날 장기기증신청서에는 호법부장 덕문 스님을 비롯해 무관 스님(호법국장), 선웅 스님(조사국장), 법상 스님(호법과장), 해만 스님(상임감찰), 덕림 스님(상임감찰),

명본 스님(상임감찰), 행관 스님(상임감찰) 등 호법부 스님 8명과 일반직 종무원 2명이 서약했다. 덕문 스님은 "본부에 조용히 장기기증 신청서만 전달하려 했으나, 장기기증 행복발레이를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이 동참하길 바라는 마음에 이렇게 전한다"고 말했다. 한편 장기기증 행복발레이 첫 번째 등록자는 총주 석종사 금봉선원장 해국 스님(前 전국선원수좌회 상임대표)이다.